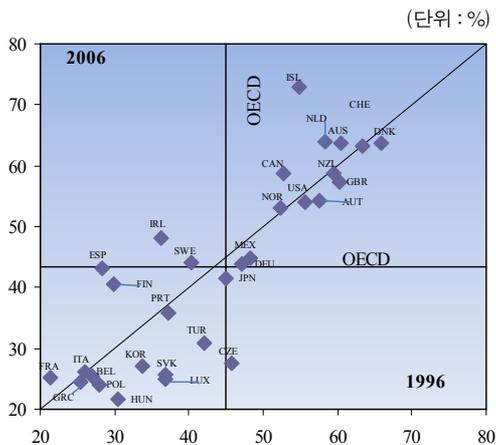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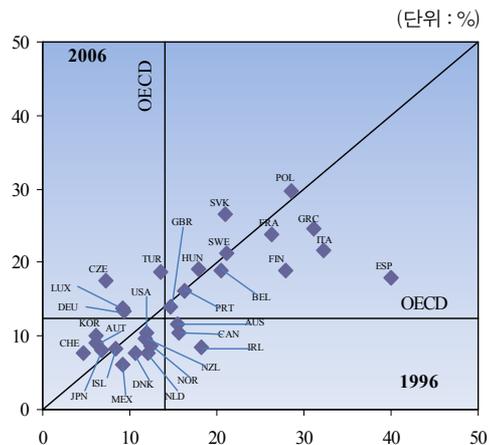
OECD국가들의 청년층 노동시장

- 지난 10년간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높아져
 - 한국의 청년층(15~24세) 고용률은 1996년 33.7%에서 2006년에 27.2%로 6.6%포인트 감소하였는데, 이는 OECD 회원국 30개국 중 체코, 슬로바키아, 터키 등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높은 감소폭임.
 - 반면, 1996년에 6.1%였던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은 2006년에 10.0%로 3.9%포인트 높아져 OECD국가 중 체코, 슬로바키아, 터키 등에 이어 6위에 해당하는 증가폭을 기록
 - 고용률이 낮아진 동시에 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고용률 감소의 원인이 진학 등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보다는 실업자수의 절대적 증가 등 시장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였음을 의미
 - OECD국가들의 청년층 고용률과 실업률은 대체적으로 1996년과 비교하여 2006년에 낮아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, 이는 [그림 1]과 [그림 2]에서 45도선 우측에 있는 국가들이 좌측보다 많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.

[그림 1] OECD 주요국의 청년층 고용률



[그림 2] OECD 주요국의 청년층 실업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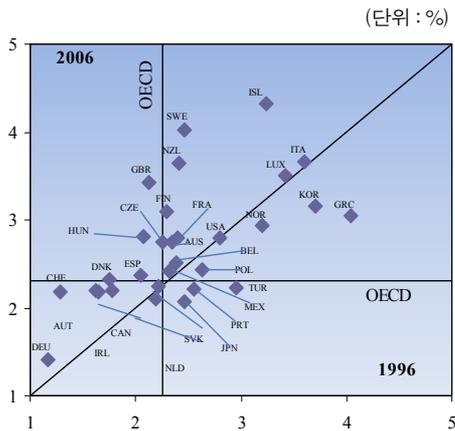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OECD(2008), *Employment Outlook*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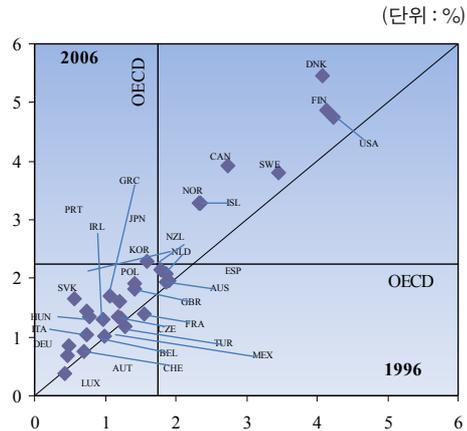
- 장년층과 비교한 청년층 실업률도 한국이 OECD국가 중 높은 수준
 - 한국의 장년층(25~54세) 실업률 대비 청년층(15~24세) 실업률의 비율은 1996년 3.7%에서 2006년에 3.2%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(2006년도 OECD 30개국의 평균은 2.3%).
 - 한국의 장년층 실업률 대비 청년층 실업률 비율의 감소는 청년층보다 높은 장년층 실업률 증가에 기인(1996~2006년 실업률: 청년층 6.7%→10.2%, 장년층 1.7%→3.5%, 자료: KOSIS)

- 장년층과 비교한 청년층 파트타임 비중은 지난 10년간 높아져
 - OECD국가들의 ‘장년층 취업자 중 파트타임 비중’ 대비 ‘청년층 취업자 중 파트타임 비중’은 1996년과 비교하여 2006년에 대부분 높아졌음(그림 4 참조).
 - 한국의 ‘장년층 취업자 중 파트타임 비중’ 대비 ‘청년층 취업자 중 파트타임 비중’ 역시 2007년도에 2.3%로 1996년의 1.6%보다 증가하였음. 하지만 수준 자체는 OECD 평균에 근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
[그림 3] OECD 주요국의 장년층(25~54세) 실업률 대비 청년층(15~24세) 실업률 비율



[그림 4] OECD 주요국의 ‘장년층(25~54세) 취업자 중 파트타임 비중’ 대비 ‘청년층(15~24세) 취업자 중 파트타임 비중’



자료: OECD(2008), *Employment Outlook*.

(강승복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)